

배종훈의
명상카툰

시간이 흘러야만



살아보지 않은 삶과 시간에 공감하는 일은 참 어렵다. 소설 '소나기'의 내용도 어린 시절에는 '이게 왜 감동적이지?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지?' 정도의 의문이 전부였다.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어주고 소년과 소녀의 감정에 대한 설명과 작가의 표현력을 열강 하셨던 국어선생님의 수업에 시큰둥했었던 내가 눈앞에 떠올랐다. 15년 정도를 살아 온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늘 따뜻한 웃음과 목소리로 또 설명하셨고 추운 겨울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을 국어편집실로 불러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게 하셨다.

세상은 울고 웃는 더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인생은 공부로 배울 수 없다. 서른, 마흔, 쉰, 예순이 되어야만 자물쇠가 열리는 일들과 감정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애틋하고 복받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학생에게 다시 황순원의 '소나기'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 나를 가르친 국어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야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고 있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⑤ '한마음아버지마당'의 유통기한

自覺이 가져다 준 가족 신뢰와 사랑

예전에 어떤 부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내분과는 공부 인연으로 만났고,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마음공부를 권유했지만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부부였다. 인사를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남자는 마음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비참해진다"는 말이 나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아마 나에게 던진 것 같다.

당시 나는 마음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해 젊어서 큰소리치고 사신 주변 남자 어른들이 연세가 들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집안 내의 천덕꾸러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의 노후를 고민하던 때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잡는 뜻으로 그 자리를 빌려 나온 목소리라 생각된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족 내에서 남자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 그럴까? 남자는 사회 위주의 생활양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그런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가장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면 자신의 역할을 또한 다한다고 굳게 믿은 것이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아버지가 강요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복종과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이해 등을 빼놓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게 반감을 가진 채로 지내다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한 아버지는 평생을 몸 바쳐 부양해 온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한다. 과거 우리의 아버지들은 은퇴를 하면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시다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의 아버지들은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을 한만큼의 기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 100세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기 힘든 남자들은 사회적 입지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가족들에게 그 복잡한 마음을 전가시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프로그램 초반에 '나의 인생그래프'를 그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즉 '내 인생의 5대 사건'을 회상하여 나이대별로 정리한 후 각 사건 당시 자신의 마음을 점수로 표시해 선으로 연결하여 한눈에 보는 것이다. 의외인 것은 '내 인생의 5대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인생의 5대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 또는 이혼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자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 결혼 · 이혼이라는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경우가 많아 남자와 가정, 남자와 가족구성원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男, '부양=역할 다한 것'이라 생각**
> **은퇴 후 입지 · 정체성 혼란 생겨**
> **서운함 및 삶의 회의 느끼기도**
> **'개인'으로서 자각 찾는 공부해야**

한마음아버지마당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 '나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간이다. 아버지는 아들이기도 하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보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다 보면, 나에게는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아픈 기억'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가 만든 모습임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나의 마음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듯 '나의 아픈 상처'와 그로 인한 지금의 모습을 진심으로 자각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종료 후 가족들에게 놀랄만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아버지마당'이 다른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되는 힘이라 볼 수 있다.

한마음아버지마당이 끝나면 참가한 아버지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그 중 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한마음아버지마당에 참가하며 저도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달라져서 참 좋은데 이 프로그램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혹시 한마음아버지마당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의 사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기간 중에는 참가자들이 진행을 잘 따라오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참가자에게 진행자가 교육과 강의를 통해 정답을 제시하고, 그 정답에 맞춰 가기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마음아버지마당에는 강의가 없다. 오직 마음을 진솔히 바라보며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차리고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스스로 참구하며 끊임없이 내 근본자리에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목표와 아버지 역할을 창조해나가는 실천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에는 효과에 대한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의 계속된 실천정도에 따라 효과가 증대되거나 기한이 무한대로 연장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생각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한마음아버지마당'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현대불교신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

